

LG화학, 중국 PVC · ABS 사업 집중

텐진 · 푸조우 PVC 생산능력 100만톤 확보 ... ABS도 70만톤으로 1위

LG화학이 중국 현지공장의 주력제품인 PVC(Polyvinyl Chloride)와 ABS(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LG화학은 9월18일 중국 닝보의 LG용싱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8년까지 PVC와 ABS 생산능력을 각각 100만톤과 70만톤으로 늘려 중국 최대 석유화학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PVC 사업에서 원재료 공급기지 건설을 통한 수직계열화 추진 ▷ABS 사업에서 기존공장 증설 ▷PVC, ABS 신규공장을 건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중국사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1995년 텐진(天津)에 합작법인인 LG다구를 설립한 LG화학은 현재 PVC 34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3년 매출액 2억600만달러와 경상이익 1600만달러를 달성했다.

LG화학은 2008년 말까지 LG다구의 PVC 생산능력을 21만톤 늘려 55만톤으로 확대하고 푸조우에도 45만톤 공장을 건설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만 총 100만톤을 생산해 1위 생산기업의 지위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ABS 사업에서도 LG화학은 1998년 닝보 소재 6만톤의 공장으로부터 2008년까지 50만톤으로 확대하고 화남 광둥지역에도 20만톤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등 한해 생산량 70만톤으로 1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LG화학의 중국 현지법인들은 철저한 현지화 정책으로 중국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져 나가고 있다.

PVC 생산법인 LG다구는 모든 회의와 문서작업을 중국어로만 사용하고 있고 총 242명의 직원 중 한국 사원은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다.

또 텐진대학 등 지역대학에 장학금을 설립하고 2003년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만연했을 때는 텐진 시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지화 정책 덕택에 LG다구의 나상진 법인장은 중국정부가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들에게 주는 2004년 우의(友意)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02년 취임한 나상진 법인장은 “통역원 없이 중국어로 회의를 진행하고 조직 내 대부분의 팀장을 중국인에게 맡겨 LG다구가 진정한 중국기업이라는 점을 현지인에게 인식시켜 왔다”고 밝혔다.

닝보의 ABS 생산법인 LG용싱은 전 임직원이 <사랑의 계좌>를 개설한 뒤 기금을 모아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LG화학은 특히 2005년 1월1일 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R&D센터를 설립해 현지에서 기술개발과 생산, 판매에 이르는 완성형 비즈니스 조직을 갖추 계획이다.

또한 현지인 채용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명문대학을 순회하며 채용설명회를 갖는 등 현지 우수인재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LG화학 현지법인 관계자는 “이직률이 70-80%에 이르는 중국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신규 인력의 20%만을 확실하게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9/21>